

# 李賀 詩의 白色 이미지 小考\*

姜昌洙\*\*

---

◁ 목 차 ▷

---

- I. 緒言
  - II. 本論
    - 1. 白色과 시간
    - 2. 白色과 가을
    - 3. 白色과 말(馬), 꽃 그리고 하늘
  - III. 結語
- 

## I. 緒言

시인은 전달하고 싶은 관념이나 실제 경험 또는 상상적 체험들을 형상화시킬 수단을 찾는다. 이미지는 의미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우리는 개개의 독립된 형태로서의 이미지나 또는 유기적으로 전후 상호 관계를 맺고 있는 형태로서의 이미지群을 숙고함으로써 주제를 추적할 수 있다. 이미지는 무엇보다도 해석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장치인 것이다.<sup>1)</sup>

우리에게 가해지는 외부의 자극이 신체의 지각 작용 즉 오관에 의해 이미지라는 영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만들어진다. 그 영상이 시각에 의한 것이면 시각 이미지가 되고, 청각적인 것이 주가 되면 청각이미지가 되며, 두 개 이상의 감각이 공존하거나 관여하게 되면 공감각인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에서 만들어진 영상은 시적 문자로서 탈바꿈한다. 문자의 감관에 대한 자극은 인간의 심리에 만들어지는 그림이며, 모든 오관 이미지의 재현을 포괄하는데, 가장 보편적인 것이 바로 시각 이미

---

\* 본 연구는 2013학년도 서경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서경대학교 국제비즈니스어학부 중어전공 교수

1) 金垞五, 《詩論》, 서울, 삼지원, 1998, 103쪽.

지로서, 시각 이미지는 색채, 명암, 動靜을 포괄한다. 그 가운데 색채는 시각 이미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색채가 조성하는 강렬한 시각효과는 이미지를 더욱 신선하고 생동적으로 만든다. 시인은 영원히 이미지를 만드는 노력을 포기할 수 없기에, 시인은 또한 결코 색채의 운용과 응용을 버릴 수 없다.<sup>2)</sup>

荒井健은 李賀, 韓愈, 王維 3인 시의 색채자 운용을 비교한 바 있는데, 이하의 경우 총 글자 수의 3.3%가 색채자로서, 왕유의 1.5%, 한유의 0.8%를 훨씬 능가한다. 즉 이하는 30자 중 1자가, 왕유는 67자 중 1자가, 한유는 125자 중 1자가 색채자인 것이다.<sup>3)</sup> 한유는 차치하고라도 시와 그림의 일치를 실천하였던 왕유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은 색채자를 사용한 것을 보면 이하가 시에서 얼마나 색채를 즐겨 사용했는지를 알 수 있다.

白色은 李賀의 시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색채이다. 현재 전하는 이하의 시 241수<sup>4)</sup> 중 79수에서 白字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무려 약 33%에 달하는 수치이다. 구수로는 모두 92개의 시구에서 白字가 사용되고 있다. 흰빛을 묘사하는 색채자에는 백자 이외에 素字, 皓字 등의 있는데, 素字는 16개의 시 16개의 시구에, 皓字는 2개의 시 2개의 시구에 사용되고 있다.<sup>5)</sup>

우리는 사물을 인식할 때 그 사물의 형과 색을 시각을 통하여 인식한다. 일차적으로는 그 사물의 형태를 통하여 기본적인 정보를 얻게 된다. 그 후에는 색채를 통하여 그 사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인식을 하게 된다. 물론 그것은 많은 시간차를 두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동시에 일어나기도 한다. 하지만 시에서의 이미지면에서는 그 형태보다는 색채의 강렬함이나 표현력이 더욱 상상력의 확대에 기여할 수도 있다. 이 점에서 색채에 대한 연구는 한 시인의 시적 본질에 다가갈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방법 중의 하나일 것이다.

2) 楊文雄, 《李賀詩研究》, 台北, 文史哲出版社, 民國 69, 137쪽.

3) 馬楊萬運, 《李長吉研究》, 台北, 臺灣大學中文研究所碩士論文, 民國 58年, 29쪽 參照.

4) 이하 시에 대한 판본으로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葉葱奇가 校注한 《李賀詩集》(台北, 里仁書局, 民國 71)을 기준으로 한 숫자임. 淸의 王琦가 注한 《李長吉歌詩彙解》(台北, 世界書局, 民國 71)에는 〈靜女春曙曲〉·〈少年樂〉 두 수가 “別書採出”이라 하며 〈補遺〉라고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타인의 위작일 가능성이 크다고 함.

5) 白, 素, 皓字 외에 粉, 淸, 玉字 등도 종종 흰색으로 해석되기도 하나, 본고에서는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아울러 素字 역시 추후 고를 달리해 논하고자 한다.

## II. 本論

“白”字는 단순히 하나의 글자로서의 사용되어 주로 관형어로서 “희다”라는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하나의 詩句 또는 全詩에서 전체적인 주제와 관련성을 가지며 사용될 때 보다 정확한 의미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예컨대 “白日”이라고 하면 단순히 해 또는 대낮으로 해석이 되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시에서 갖는 의미는 “희다”라는 의미의 “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또한 “秋白”이라고 하면 “가을이 희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뛰어넘어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가을의 쓸쓸함이라든가 고독감 등을 고찰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하의 시에서 그런 식으로 사용된 “白”字의 용례는 “白日”, “白晝”, “白馬” 등이 있다. 다음 표는 그것을 유형과 용례로 분류해 본 것이다.<sup>6)</sup>

유형	용례
하늘, 공간	空白(2), 澹白, 東方白, 天下白, 白空, 白天, 斜白, 天白, 野白, 塚白
시간, 해	白日(6), 白晝(4), 白曉(2), 白景, 日白
가을	秋白(2), 秋漫白, 秋風白
물, 자연물	白濤, 白水, 白泱泱, 白于水, 白雲(2), 白露, 白霧
말	白馬(8), 白騎, 白踏, 白驢, 白騮, 白翩翩
동물	白鸞, 白鹿(3), 白鳳(2), 白魚(2), 白鼉, 白鸛, 白狐, 白虎
식물, 꽃	白蘋(2), 白草(2), 花白(2), 小白白藤
인체	白髮(2), 髮白, 白帝
기타	憐白, 白蓋, 白裕, 白翎, 白如幢, 白衫, 白屋, 白筆, 清白, 平白

6) 이러한 분류는 순전히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예컨대 하늘·공간 유형에서 “東方白”의 “白”은 “밝다, 희다”가 주된 뜻이지만, “東方白”이란 시구로 사용되어 주체로서의 “東方”에 종속될 때 더욱 의미를 가질 수 있는 “白”이라고 판단하여 그 유형에 포함시켰다. 마찬가지로 “白日”은 “해”라는 의미도 있지만 “대낮, 한낮”이라는 뜻을 가지며 더욱 의미 있는 시어가 된다고 생각한다. 말(馬)을 동물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설정한 것은 말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이하 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강호 제현의 질정을 바란다.(괄호 안의 숫자는 출현 횟수)

위 표로 보아 알 수 있듯이 동일 글자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白馬”로 모두 8개의 시구에서 사용되었으며, 이어 “白日” 6개의 시구, “白晝” 4개의 시구 순으로 사용되었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대표적인 유형을 “시간”, “가을”, “말(馬)” 등 몇 가지 나누어 그 용례를 살펴보고 李賀 詩 白色字 사용이 상징하는 이미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 1. 白色과 시간

李賀는 불과 27세에 요절하였다. 여러 기록에 따르면<sup>7)</sup>, 몸집이 가냘프고 말랐으며 눈썹은 하나로 이어진 모습에 손가락과 손톱이 길었다고 한다. 많은 시를 지음으로 해서 모친이 “이 아이가 심장을 토해내어야 詩作을 그만두겠구나<sup>8)</sup>”라고 걱정했다는 것을 보면 아주 병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질병과 가난 등으로 인한 현실세계의 고통은 그의 시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며, 그러한 영향의 한 형태가 시간에 대한 인식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李賀의 시에는 그러한 사유의 대상으로서의 시간을 노래한 시가 많은데, 색채자 “白”字는 그러한 시에서 종종 사용되어 주제를 두드러지게 하는 시어로 사용되고 있다. 즉 시간이나 시각, 시점을 의미하는 글자인 “日”·“晝”·“曉” 등과 連用되어 단순히 흰색으로서의 “白”이 아닌 시간의 허무함이나 인생의 무상함 등을 느끼게 하는 하나의 字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다음 시는 시간을 노래한 수작으로 꼽히는 시이다.<sup>9)</sup>

060〈古悠悠行〉	아득한 옛날
01白景歸西山	하얀 해는 서산으로 지고
02碧華上迢迢	파란 구름은 하늘 위로 아득하다
03今古何處盡	고금의 시간은 어디에서 다했는가
04千歲隨風飄	천년 세월 바람 따라 회오리친다

7) 杜牧, 〈李長吉歌詩敘〉· 李商隱, 〈李長吉小傳〉 등.

8) 李商隱, 〈李長吉小傳〉: “是兒要當嘔出心始已爾”

9) 이하 각 시 제목 앞의 숫자는 葉葱奇가 校注한 《李賀詩集》(台北, 里仁書局, 民國 71)의 순서에 따른 숫자임.

05海沙變成石	바다 모래는 돌이 되고
06魚沫吹秦橋	물고기 포말은 진시황 다리 아래에서 불어온다
07空光遠流浪	시간은 끊임없이 파도처럼 흐르고
08銅柱從年銷	구리 기둥은 세월 따라 사라진다

“古悠悠”는 아득한 옛날이란 의미이다. 이 시는 작자가 21세 때인 憲宗 元和 5년(810년) 長安에서 奉禮郎으로 있을 때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sup>10)</sup>

“白景”은 서산으로 지는 해를 의미한다. “碧華”는 달빛을 받아 파랗게 빛나는 구름으로 볼 수도 있고, 그냥 달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느 경우든 앞의 시구 “白景”과 대비적인 색채감을 느끼게 한다. 해가 서산으로 지고, 달이 떠오르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시간에 민감한 시인에게는 삶의 허무함을 느끼게 하는 일이다. 이어 3, 4구에서는 유유히 흐르는 시간만이 이 넓은 우주에서 영원무궁한 것임을 노래하고 있다. “千歲”는 단지 천년이라는 시간만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바다모래가 돌이 되듯 모든 사물은 변화하고, 시간은 영원히 흐른다. 秦始皇과 漢武帝가 그랬듯 인간의 슬픔, 시인의 비극은 바로 시간의 영원함과 대비되는 인생의 짧음인 것이다.

李賀는 “생명에 내재된 깊은 불안”과 “인간 역사의 興亡盛衰에 대한 無常感”으로 시간을 내면화하여 표현한 것이며,<sup>11)</sup> 그리고 그러한 인식의 배경에는 시인 자신의 병약한 육체로 인한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sup>12)</sup> “白”자는 그러한 표현을 위해 사용된 가장 적합한 색채자인 것이다.

214〈官街鼓〉	큰길의 북소리
01曉聲隆隆催轉日	새벽 북소리 등등 해 뜨길 재촉하고
02暮聲隆隆催月出	저녁 북소리 등등 달 솟길 재촉한다
03漢城黃柳映新簾	장안의 노란 버들잎 새로이 珠簾에 비치고
04柏陵飛燕埋香骨	측백나무 사이 무덤엔 趙飛燕의 향기로운 뼈 묻혔다

10) 以下 各 詩의 著作 時期는 朱子清, 〈李賀年譜〉(台北, 清華學報, 1933), 楊文雄, 《李賀詩研究》(台北, 文史哲出版社, 民國 69) 홍상훈, 《시귀의 노래》(서울, 명문당, 2007) 등을 참고로 한 것이다.

11) 李正治, 〈李賀詩裏의 時間意識〉: 台北, 《中華文化復興月刊》第10卷 4期., 民國 66.

12) 楊文雄, 《李賀詩研究》, 台北, 文史哲出版社, 民國 69, 235-238쪽 參照.

05 碓碎千年日長白	북소리 천년을 부셨어도 해는 길이 빛나는 것
06 孝武秦皇聽不得	그 북소리 한무제 진시황은 듣지 못하였다
07 從君翠髮蘆花色	그대 푸르던 머리칼 갈대꽃처럼 희어져도
08 獨共南山守中國	홀로 남산과 더불어 京城을 지키리
09 幾回天上葬神仙	몇 번이던가 천상에서 신선의 장례를 지낸 것이
10 漏聲相將無斷絕	물시계 소리만 북소리와 함께 끊어질 줄 모른다

시는 처음부터 예사롭지 않은 화면을 보여준다. 해와 달이 순환하며 떠오르는 우주와 하늘의 모습과 끊이지 않는 북소리를 감각적으로 묘사한다. 이어 3, 4구는 인간계의 모습이다. 봄날의 버드가지가 막 셋노랑게 피는 모습과 미인의 무덤은 대비를 이룬다. 5, 6구는 또다시 대비적인 수법으로 북소리를 썼다. 천년이라는 세월동안 사람이나 사물은 북소리가 부서지듯 사라졌어도 “日長白” 즉 우주는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시간과 비교해보면 秦始皇이나 漢武帝의 생명은 얼마나 짧은 것인가. 물론 “官街鼓”는 唐의 제도<sup>13)</sup>이므로 그 이전 사람인 진시황이나 한무제가 당연히 그 소리를 들었을 리는 없다. 시인이 말하고자 한 것은 멈추지 않고 흐르는 영원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7, 8구에서는 인생과 “官街鼓”를 다시 한 번 대비한다. 두 차례에 걸친 대비는 결국 인생의 유한함과 시간의 무한함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 두 구에서는 신선의 죽음보다 더 영원한 북소리와 시간의 항구성을 노래하였다.

“官街鼓”는 “咚咚鼓”라고도 하는데, 시간을 알리는 신호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단순히 시간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멈추지 않고 흐르는 시간을 상징한다. 각 시구는 반복적으로 인간 생명·사물 존재의 유한함과 시간의 무한성을 대비시키고 있다. 시간이라는 영원성과 북소리라는 청각과의 결합을 통하여 무형과 유형이 결합되고 추상적 개념은 감각적 형상으로 구체화된다. “日長白”에서 색채자 “白”은 “長”과 결합하여 “日” 즉 우주의 영원함과 시간의 항구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011〈送沈亞之歌并序〉 심아지를 보내며· 서문과 함께

01 吳興才人怨春風 오흥의 재주꾼 봄바람을 원망하는데

13) 《新唐書·百官志》: “左右金吾圍左右街使, 掌分察六街徼巡, 日暮鼓八百聲而開閉, 五更二點鼓自內發, 街鼓承振, 坊市門皆啓, 鼓三千搗, 辨色而止.”

02 桃花滿陌千里紅	복사꽃 밭둑에 만발하여 천리나 붉다
03 紫絲竹斷驄馬小	자죽 채찍은 부러지고 총마는 왜소한데
04 家住錢塘東復東	집은 전당에 있어 동쪽으로 또 동쪽으로
05 白藤交穿織書笈	흰 등나무 줄기 엮어 책 상자 만들고
06 短策齊裁如梵夾	짧은 죽간 가지런히 잘라 범첩처럼 만들었다
07 雄光寶礦獻春卿	웅장한 보석을 예부에 바치려고
08 烟底鷺波乘一葉	안개 자욱한 강 물결을 조각배로 건넜다
09 春卿拾才白日隙	예부의 관리 백주 대낮에 인재를 모으면서
10 擲置黃金解龍馬	황금 갖고 용마 같은 인재 던져버리고 놓아버렸다
11 携笈歸家重入門	책 상자 들고 돌아가 다시 문을 들어서는데
12 勞勞誰是憐君者	아프디 아픈 가슴, 누가 그댈 아껴줄까
13 吾聞壯夫重心骨	듣자니 장부는 심골을 중시하는지라
14 古人三走無摧挫	옛 사람은 세 번이나 도망쳐도 기를 꺾지 않았다네
15 請君待旦事長鞭	바라건대 그대여 새벽을 기다리며 더욱 공부하여
16 他日還轅及秋律	다음에 다시 돌아와 과거에 급제하시길

이 시는 친구 沈亞之의 낙방을 위로하며 지은 시이다. 서문에 “문인 심아지는 원화 7년 명서과에 응시했으나, 급제하지 못하고 오강으로 돌아갔다. 나는 그가 떠남에 여비를 주지 못하고 한 잔 술로 위로조차 못한 것이 슬펐다. 또 그의 간청에 감동하여 노래 한 곡을 지어 그를 보냈다”<sup>14)</sup>라고 되어있는 것을 보면 저작 시기는 서기 812년, 작자 나이 23세로 당시 그는 장안에서 奉禮郎이만 말단 관직을 하고 있을 때였다.

첫 구 “吳興才人”은 친구 심아지를 가리킨다. “吳興”은 심아지의 고향이다. 1-4 구는 낙방하고 실의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친구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7구의 “雄光寶礦”은 심아지의 재능을 극찬한 말이다. 그러나 9, 10에서 보듯 예부의 관리인 “春卿”은 “황금 갖고 용마 같은 인재”인 심아지와 그의 재능을 “白日” 즉 환한 백주 대낮임에도 알아보지 못하고 선발하지 않은 것을 비난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白日”은 결코 긍정적인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다. 뛰어난 재능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둔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白”으로 사용되고 있다. 마지막 4구는 친구에 대한 기대와 격려와 쓴 것이다. 특히 14구의 “三走”는 《史記·管晏列傳》에 나오는 管仲의

14) “文人沈亞之，元和七年以書不中第，返歸於吳江。吾悲其行，無錢酒以勞，又感沈之勤請，乃歌一解以送之。”

말로써, 절친한 우정을 뜻하는 “管鮑之交” 고사의 출전이기도 한 것을 보면, 이하와  
 십이지 두 사람의 깊은 우정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156〈開愁歌〉	시름을 풀자
01秋風吹地百草乾	가을 바람 대지에 불어 온갖 풀 시들고
02華容碧影生晚寒	가을 꽃 푸른 나무 그림자에는 쓸쓸한 저녁 한기
03我當二十不得意	내 나이 스물에 뜻 얻지 못하니
04一心愁謝如枯蘭	마음 온통 수심에 시든 것이 메마른 난초 같아라
05衣如飛鷄馬如狗	의복은 헤지고 말은 개처럼 여위어
06臨岐擊劍生銅吼	갈림길에서 칼 두드리니 구리소리 울부짖는다
07旗亭下馬解秋衣	깃발 멈춰 말 내려 가을 옷 벗어들고
08請貰宜陽一壺酒	의양술 한 병과 바꾸기를 청했네
09壺中喚天雲不開	술 병 속 하늘 보고 외쳐보지만 구름 아니 걷히고
10白晝萬里間淒迷	백주 대낮이건만 넓은 세상은 쓸쓸하고 적막할 뿐
11主人勸我養心骨	술집 주인 권하길, 마음과 기골 길러
12莫受俗物相填壓	속물에 마음 상하지 말라 하네

이 시는 정치와 사물을 묘사하면서, 시인의 시름과 고민을 직접적으로 토로한 李賀의 수작 중의 하나이다. 저작 시기는 대략 서기 809년, 작자 나이 20세로 당시 그는 진사에 급제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있을 때였다. 제목 “開愁”는 “시름을 풀다”라는 의미이다.

첫 두 구는 시인이 눈앞의 광경을 묘사하면서 자신의 감정과 하나로 융합시킨 것이다. 이어 3,4 구에서는 부친의 銜字가 “鴛”자라 하여 進士試에 응시조차 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노래했다. 바로 “枯蘭”은 바로 눈앞의 경물을 보고 떠올린 자신의 마음이다. 5-8구는 자신의 고통과 불만을 더욱 크게 노래하고 있다. “擊劍”은 분발의 의미로서 두드리는 담금질이 아니라, 가슴속의 원망을 토로하기 위한 행위이다. 옷을 맡기고 술을 마셔보지만 가슴속의 슬픔은 사라지지 않는다. 백주임에도 뜬구름이 해를 가려 캄캄하다. 조금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 시인의 고통은 정점에 이른다. 마지막 두 구에서는 앞의 분위기를 조금 달리 제목의 “開愁”라는 주제와 맞닿으며 끝을 맺는다.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절망과 고통이다. “한낮”이라는 시간과 “萬里”라는 공간



은 시인에게는 쓸쓸하고 적막한 존재일 뿐이다. “白晝”는 만물이 생기 있게 활동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공허하고 무의미한 시간일 뿐인 것이다.

## 2. 白色과 가을

李賀의 詩에서 계절로서 많이 등장하는 글자가 가을을 의미하는 “秋”字이다. 秋자는 모두 81개의 시구에 나오는데, “春”자 86개의 시구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지만 “夏”자 3개, “冬”자 5개의 시구보다는 월등히 많은 수이다. 그것은 가을이라는 계절적 이미지가 시인에게 끼친 영향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白”字가 夏자, 冬자는 물론 가장 많이 등장하는 春자와도 한 번도 함께 사용되지 않고 오로지 “秋”字와만이 함께 쓰이고 있다는 것은 시인이 느끼는 가을과 그 이미지를 대표하는 색채는 바로 백색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가을의 이미지를 한 마디로 하면 수확이다. 그 수확은 인간의 소망과 노력으로 결실을 맺는 풍요로움과 번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가을은 수확의 이미지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수확 뒤에 오는 공허함과 덧없음 그리고 쓸쓸한 감정 등은 어찌면 수확이라는 이미지보다 더 각인되는 가을의 또 다른 이미지이기도 한 것이다. 가을의 모습이 주는 덧없음과 고독과 쓸쓸한 감정으로 인하여 가을은 황혼과 죽음을 생각하게 하고, 향수와 후회를 반추하게 만든다.

그러한 가을의 이미지에 색채로서의 白色이 추가됨으로써 가을은 계절과 색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공감각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128〈將發〉	떠나련다
01東床卷席罷	동쪽 침상에서 짐을 꾸러
02護落將行去	뜻을 잃은 나는 떠나려 한다
03秋白遙遙空	하얀 가을 까마득한 허공
04日滿門前路	햇빛만이 문 앞길에 가득하다

이 시는 憲宗 元和 9年(814년) 25세 때의 작품으로, 그때는 전년에 미관말직인 봉례랑을 사직하고 고향인 昌谷으로 돌아온 작자가 다시 潞州로 가서 張徹의 幕僚가 된 해이다. 1, 2구는 행장을 꾸려서 길을 떠나려하는 것을 노래했다. “卷席罷”는

행장을 꾸리는 것을 말한다. “護落”은 의지할 곳 없는 적막한 신세를 의미한다. 제3구의 “白”은 하나의 글자를 통해 색깔과 촉감, 그리고 그것을 통해 연상되는 이미지까지 한꺼번에 묘사하는 이하 시 특유의 표현 가운데 하나이다. “秋白”은 햇살과 공기가 맑고 깨끗한 가을의 모습과 추수가 끝나고 텅 빈 가을 들판의 모습을 한꺼번에 묘사하고 있는데, 이처럼 모순적인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나타내는 우리말의 적당한 표현은 찾기 어렵다.<sup>15)</sup>

의지할 곳 없이 쓸쓸하고 외로운 신세의 시인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張徹의 막료가 되기 위해 고향을 떠나는 모습을 그린 시이다. 떠나던 그때는 가을로서 수확의 가을이라기보다는 공허함과 쓸쓸함의 가을이다. 그 가을에 덧붙여진 글자 “白”은 이하 특유의 “白”으로서 李賀 詩 白色字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하나의 자안이라고 할 수 있다.

186〈梁臺古意〉	그 옛날의 양대
01梁王臺沼空中立	높가 양왕의 누대 공중에 우뚝한데
02天河之水夜飛入	은하수 물이 한밤중에 날아든다
03臺前鬪玉作蛟龍	누대 앞엔 옥을 갈아 교룡을 만들었고
04綠粉掃天愁露濕	하늘을 비질하는 초록 덧잎엔 근심이 이슬처럼 촉촉하다
05撞鐘飲酒行射天	잔 부딪혀 술 마시며 하늘로 화살 쏘니
06金虎蹙裘噴血斑	금빛 호랑이 움츠린 갖옷엔 핏자국 얼룩졌다
07朝朝暮暮愁海翻	아침마다 저녁마다 시름겨운 파도가 뒤집어지고
08長繩繫日樂當年	긴 새끼줄로 해를 묶고 즐거운 시간 보냈다
09芙蓉凝紅得秋色	붉은 부용꽃엔 가을빛이 물들었고
10蘭臉別春啼脈脈	봄과 헤어지는 난초의 얼굴에 눈물이 주루룩
11蘆洲客雁報春來	갈대 섬의 기러기 봄에 다시 온다 말하네
12寥落野漉秋漫白	쓸쓸한 들판 해자에 가을이 온통 하얗다

시인의 풍부한 상상력이 만들어낸 한 편의 그림 같이 아름다우면서도 시간의 허망함이 돋보이는 시이다. 저작 시기는 元和 5년(810년)으로 長安에서 奉禮郎으로 있을 때이다. “梁臺”는 西漢의 梁孝王 劉武가 지은 宮苑의 이름으로, “梁園”, “菟園”이라고도 하는데, 옛터가 지금 河南 商丘에 있다. 1-4구는 과거 梁臺의 호화스

15) 홍상훈, 《시귀의 노래》(서울, 명문당, 2007) 203쪽.

러운 모습을 그리고 있다. 마치 공중에 우뚝 서있는 듯 화려한 누대, 누대 옆 연못의 물은 마치 하늘의 은하수에서 흘러 들어오는 듯하다. 누대 앞은 옥을 갈아서 장식한 용과 이슬에 젖은 푸른 대나무가 공중에서 휘날린다. 과거 梁臺의 아름다운 모습이 시인의 붓끝에서 재현된다. 5-8구는 과거 梁孝王 劉武의 교만함과 방자함을 노래했다. 특히 8구의 “長繩繫日”는 물론 과장과 환상이 섞여있기는 하지만, 양효왕의 일락과 방종함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9-12구에서는 상상의 세계에서 현실의 세계로 돌아온다. 꽃이 피고 지고, 기러기는 강남으로 돌아가는 계절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 속에 적막한 들판은 온통 가을이다. 그 가을에 색채자 “白”은 가을을 더욱 쓸쓸하고 허망하게 만든다. 그야말로 “秋漫白”인 것이다.

212〈月漉漉篇〉	촉촉한 달빛
01月漉漉	촉촉한 달빛
02波煙玉	파도처럼 일렁이는 옥 같은 안개
03莎靑桂花繁	향부자 푸르고 계수나무 만발하니
04芙蓉別江木	부용꽃은 강가 나무와 이별한다
05粉態袂羅寒	미녀가 껴입은 비단 옷은 차갑고
06雁羽鋪煙溼	기러기 깃털은 안개에 젖었다
07誰能看石帆	어찌하면 석범산을 볼 수 있을까
08乘船鏡中入	배 타고 경호 속으로 들어가네
09秋白鮮紅死	하이얀 가을날 부용꽃 지고
10水香蓮子齊	향기로운 물 위엔 연밥이 가지런하다
11挽菱隔歌袖	노래하는 여인의 소매 사이로 마름을 따는데
12綠刺胃銀泥	연못빛 가시가 은빛 치마에 얽힌다

“月漉漉”은 “달빛이 마치 물을 머금은 듯하다”는 말로 그 제목부터가 상당히 감각적이다. 달빛이 물에 비치니 물은 마치 하늘과 같다. 안개는 물위에서 일렁이듯 피어오른다. 빛이라는 시각과 물, 안개 등의 촉각이 뒤섞여 감각적인 화면을 보여준다. 제4구 “芙蓉別江木”는 〈九歌·湘君〉의 “搴芙蓉兮木末”가 출전으로 보이는데, “강가의 나무와 이별한다”는 것은 꽃이 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제7구 “石帆”은 石帆山으로, 浙江省 紹興縣 監湖 남쪽에 있는 산이다. 監湖는 鏡湖라고도 하는데, 제8구 “乘船鏡中入”의 “鏡”은 바로 鏡湖를 말한다. 제9구의 “秋白”은 가을날

의 맑은 호숫물로 볼 수도 있고, 단순히 맑고 깨끗한 가을날로 볼 수도 있다. 호숫물이건 가을 하늘이건 색채면에서 “鮮紅”과 어울리며 그 색채감을 더욱 두드러지고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음 시에 나타나는 “白”은 李賀 詩 白色字 용례의 압권으로 평가받는 것이다.

091〈南山田中行〉	남산의 밭에서
01秋野明	가을 벌판 환하고
02秋風白	가을 바람 하얗다
03塘水漻漻蟲嘖嘖	맑디 맑은 못의 물에 벌레들이 짹짹.
04雲根苔蘚山上石	구름은 이끼 가득한 산위의 돌에 자욱하고
05冷紅泣露嬌啼色	이슬에 젖은 차가운 꽃잎은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
06荒畦九月稻叉牙	황량한 밭이랑 구월이라 벼이삭 어지럽고
07蟄螢低飛隴徑斜	반딧불은 밭 두렁길 비스듬히 낮게 난다
08石脈水流泉滴沙	돌 사이로 흐르는 샘물은 모래를 적시고
09鬼燈如漆點松花	칠흙 같던 귀신 불빛은 소나무 꽃에 번득인다

시는 시작되자마자 두 개의 “秋”字를 짧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시의 어조를 명쾌하고 가볍게 만든다. 이어 맑은 물소리를 형용하는 글자와 벌레소리를 묘사하는 글자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꾀한다. 넓은 가을의 벌판, 하늘에는 달이 떠있고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온다. 눈앞 연못은 깊고 푸르다. 귤가엔 풀벌레가 운다. 소리와 색이 충만하다. 4, 5구는 산의 모습을 그렸다. 산위에는 구름이 가득하고 바위 위에는 이끼가 가득한데, 서늘한 바람 속에 피어있는 꽃이 머금은 이슬은 마치 소녀의 눈물 같다. 구름의 색, 바위 위의 이끼의 색, 꽃잎의 붉은 색, 그것도 그냥 붉은 색이 아니라 “冷紅” 즉 차가운 붉은 색이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6, 7구는 벌판의 모습을 그렸다. 깊어가는 가을 9월, 수확을 끝내고 버려진 벼단 위로 반딧불이가 하얀 빛을 뿌리며 날아다닌다. 8, 9구는 앞의 분위기에서 더 나아가 삼엄하고 공포적인 느낌마저 든다. 샘물이 흐르는 소리, 귀신의 불빛 같은 청각과 시각이 결합하여 그 감각적인 예술성이 더해진다.

이 시는 가을밤 추수가 끝난 들판의 모습을 환상적인 필치로 그린 시이다. 그 모습은 밝으면서도 약간은 어둡고, 명량한 듯 하면서도 애절한 감각으로 다가온다. 특히 여러 가지 감각적 이미지가 조화를 이루는데, 앞서도 언급했지만 특히 “秋風

白”은 이하 시 색채 이미지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秋風白”! 어찌 바람이 흰 수가 있는가?

“秋風”이라는 시어 뒤에는 보통 “바람이 분다”라는 의미의 “起”·“吹”·“入” 등이 술어로서 나오고, 더 확대하면 바람소리를 의미하는 “瑟瑟”·“蕭蕭”·“蕭瑟” 등이 동반된다. 그렇다면 “희다”라는 의미의 색채자 “白”은 도대체 무슨 의미로 “바람”이라는 축각을 나타내는 “風”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었는가. 그 열쇠는 바로 “秋”에 있다. 바람은 바람이되 가을의 바람이므로 “白”이 가능한 것이다.

### 3. 白色과 말(馬), 꽃 그리고 하늘

말(馬)은 李賀 시 본질을 파악하는 관건 중의 하나이다. 이하가 말을 소재로 하여 쓴 시는 그 숫자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하 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소재라는 말이다. 말은 박력과 도약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굳건한 체구와 탄력 있는 근육으로부터 뿜어 나오는 싱싱한 생동감, 당당한 보무, 달릴 때의 거친 숨소리 등은 그 이미지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강인한 인상을 준다. 馬는 이하의 자부심과 희망의 상징이었다. 이하가 馬를 제재로 한 많은 시를 지은 것은 그가 말띠였고, 馬에 대하여 친밀감을 가졌으며, 무엇보다도 자신을 말에 비유하여 자신의 자부심과 자존감, 나아가 懷才不遇의 심정 등을 표현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sup>16)</sup>

062〈馬詩二十三首·其一〉 말의 노래 23수의 제1수	
01龍脊貼連錢	등에 동전 같은 무늬 연이어진 용마
02銀蹄白踏煙	은빛 말발굽의 흰 빛은 안개를 밟는 듯
03無人織錦韉	비단으로 다래 짜는 이 아무도 없는데
04誰爲鑄金鞭	누가 금으로 채찍을 만들어 줄까

첫 구의 “龍”은 이 말이 평범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sup>17)</sup> 등에는 동전이

16) 姜昌洙, 〈李賀 詩 色彩 이미지 研究 序說〉: 《중국문학연구》 제44집(한국중문학회, 2011년 8월) 33쪽.

17) 《周禮》에 따르면 말의 키가 여덟 척 이상 되는 경우를 용이라고 했다(홍상훈, 《시귀의

연이어져 있는 모양을 말하는 연전의 무늬가 새겨져 있는 명마이다. 또한 은으로 장식한 말굽은 그 위풍당당함을 나타낸다. “白”은 은빛 말굽이 번득이며 내는 빛깔이다. 즉 “白”은 이 말의 위엄을 더욱 더 선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색채인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 명마를 위하여 비단 다래를 만들어 주지 않고 금으로 장식한 채찍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

“馬詩”는 모두 23수로 元和 元年에서 8년(806년-813년) 사이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아무리 뛰어난 명마라 하더라도 알아주는 이가 없으면 鈍馬에 불과하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제 아무리 능력이 있고 뛰어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됨을 알아보고 등용할 수 있는 혜안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말은 바로 회재불우의 李賀 자신의 모습이다.

042〈洛姝眞珠〉	낙양의 미녀 진주
01眞珠小娘下青廓	진주 같은 낙양 아씨 파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인 듯
02洛苑香風飛綽綽	낙양의 정원에는 향긋한 바람 살랑살랑
03寒鬢斜釵玉燕光	차가운 귀밑머리에 비껴 꽃은 옥비녀 빛
04高樓唱月敲懸璫	높은 누대에서 달 보고 노래하니 귀고리 딸랑딸랑
05蘭風桂露灑幽翠	난초 바람과 계수나무 이슬은 질푸른 이파리에 뿌려지고
06紅絃裊雲咽深思	붉은 현은 구름에 간들간들 수심에 흐느낀다
07花袍白馬不歸來	아름다운 옷에 백마 탄 님은 돌아오지 않으니
08濃蛾疊柳香唇醉	짙은 눈썹 찌푸리니 곱친 버들잎 향긋한 입술은 시름에
〈下略〉	취한 듯

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듯한 洛陽의 미녀인 眞珠의 모습을 형용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은 낙양의 궁원에 향기로운 바람을 몰고 온다. 귀밑머리에 꽃은 옥으로 된 비녀는 달빛 아래 반짝거리며 그녀가 노래할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를 낸다. 도처에 난향을 실은 바람과 계수나무에 맺힌 이슬이 떠다니는 밤, 진주 아가씨가 켜는 거문고 소리가 간들간들 구름 끝에 걸려있다. 하지만 그녀가 그토록 기다리는 백마를 탄 님이 돌아오지 않으니 진주 아씨는 슬픈 모습으로 눈살을 찌푸리고 시름으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백마는 그녀가 그리워하며 기다리는 님

이며 바로 시인이 그리는 자신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다.

이 시는 元和 5년에서 8년 사이 長安에서 奉禮郎으로 있을 때 지은 것으로 여겨진다. 낙양의 미녀인 진주의 아름다운 모습과 고운 품성을 노래했는데, 그녀는 이어 제9구에서 16구에 등장하는 낙양의 다른 기녀들, 바람둥이 남성네들이 찾는 기생들과는 판연히 다르다. 그러한 대비는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으나 적막하고 쓸쓸한 자신과 “가는 허리에 머리를 풀어헤치고 값싼 향기를 풍기는(제14구 楚腰衛鬢四時芳)” 소인배들과의 대비이기도 하다. 자고로 수많은 시인묵객이 미녀에 대하여 많은 노래를 불렀지만, 이하의 이 시는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시란 이미지라는 면에서 보면 이 시는 촉각·청각·시각이 미지 등이 감각적으로 묘사되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밖에 “白馬”가 등장하는 시로는 “장군은 백마 타고 달리고 호방한 사내는 영웅을 모셔온다”<sup>18)</sup>·“떨랑떨랑 방울소리 울리며 오는 백마, 온 머리에 황금이 무직하네”<sup>19)</sup>·“동쪽 집의 나비 서쪽 집으로 나니, 백마 탄 소년이 오늘 돌아오리라”<sup>20)</sup> 등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白馬”는 “白馬를 탄 남성의 멋있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다음으로 “白”이 꽃이나 풀 등을 상징하는 시구를 보자.

046〈南園十三首·其一〉〈남쪽의 정원 13수〉의 제1수

- |           |                                |
|-----------|--------------------------------|
| 01花枝草蔓眼中開 | 가지의 꽃과 넝쿨풀이 눈앞에 피어나니           |
| 02小白長紅越女腮 | 자그마한 하얀 꽃 길쭉한 붉은 꽃들은 월나라 미녀의 볼 |
| 03可憐日暮嬌香落 | 불쌍하다 해 저물면 고운 향기 다하여           |
| 04嫁與春風不用媒 | 봄바람에 시집가네 중매쟁이도 없이             |

《南園十三首》는 憲宗 元和 8년(서기 813년) 작자가 관직을 버리고 고향인 昌谷으로 돌아와 있을 때 지은 시다. 南園은 《昌谷北園新筍四首》에 나오는 “北園”과 마찬가지로 시인의 집 정원이다. 이 시는 작자의 귀향 후 사상과 생활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 중의 하나이다. 전 두 구는 봄날의 개화를 쓴 것으로 “花枝”는 나무에 핀 꽃을, “草蔓”는 풀에 핀 꽃을 가리킨다. 나무에 핀 꽃은 높이 피어있는 모습

18) 115〈送秦光祿北征〉: “07將軍馳白馬, 08豪彥騁雄材”

19) 135〈賈公闓貴婦曲〉: “03嚶嚶白馬來, 04滿腦黃金重”

20) 152〈蝴蝶飛〉: “03東家蝴蝶西家飛, 04白騎少年今日歸”

이며, 풀에 핀 꽃은 낮게 핀 것으로 그 대비를 이룬다. 다음 구 “小白長紅”은 꽃의 색깔과 피어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월나라 미녀의 볼 같다는 말이다. 여기서의 백은 하얀 꽃의 의미로 쓰였다. 이어 해가 진다는 것은 봄날의 짧은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버리는 것을 말한다. 결국 그 아름답던 꽃도 저버리는 것처럼 젊고 아름답던 시간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슬픔을 노래했다. 이 시도 꽃을 노래하며 시간의 빠른 흐름에 대한 안타까움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밖에 “白”과 결합한 꽃을 노래한 시구로는 “따스한 햇살아래 봄나들이 가니 언덕엔 하얀 꽃들, 향 연기 흩어지는 벌판 숲엔 신이 내려와 자리 하네”<sup>21)</sup> · “새로 빛은 술통의 술 익는 소리 힘에 겹고, 넓은 남쪽 호수 가득 마름꽃이 하얗다”<sup>22)</sup> 등이 있다. 또 풀이름으로서 “白草”, “白蘋” 등이 “白”字를 동반하는 시어로 등장한다.

다음의 “白”자는 하늘이나 허공을 상징하는 “白”이다.

001<李憑箏篋引>	이빙의 공후인
01吳絲蜀桐張高秋	거문고 타는 깊은 가을 저녁
02空白凝雲頽不流	텅빈 하늘엔 구름 모여 잔뜩 찌푸렸다
03湘娥啼竹素女愁	상아의 눈물 대나무를 적시고 소녀가 슬픈 것은
04李憑中國彈箏篋	이빙이 長安에서 箏篋를 타는구나
05崑山玉碎鳳凰叫	곤산옥 부서지듯 봉황이 울음 우뚝
06芙蓉泣露香蘭笑	부용이 울음 우뚝 香蘭이 웃는 듯
07十二門前融冷光	열두문 앞에는 차가운 빛 녹여들고
08二十三絲動紫皇	스물 세줄 현은 자황을 감동시킨다
09女媧煉石補天處	여왜가 돌 갈아 하늘을 메꾸었는데
10石破天驚逗秋雨	돌 깨어지고 하늘 놀라 가을 비 걸려있다
11夢入神山教神嫗	꿈에서 神山에 가 신구를 가르치니
12老魚跳波瘦蛟舞	늙은 물고기 파도에 튀어 오르고 마른 蛟龍도 춤춘다
13吳質不眠倚桂樹	오질은 잠 못이루어 桂樹에 기대었는데
14露脚斜飛濕寒兔	이슬 뿌려져 달님을 적신다

시는 시작하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거문고 소리를 묘사한다. “吳絲蜀桐”은 거문

21) 163<章和二年中>: “09遊春漫光塢花白, 10野林散香神降席”

22) 202<江樓曲>: “09新槽酒聲苦無力, 10南湖一頃菱花白”



고 재료의 우수함을 말하는 동시에 거문고를 타는 연주자 李憑의 뛰어난 솜씨를 드러내는 시어이다. “高秋”는 깊어가는 9월인데 “深秋”나 “暮秋”라 하지 않음으로써 상쾌한 가을 하늘의 이미지를 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어 공후의 소리를 묘사하였는데 그 표현력이 상당히 풍부하다. 즉 형태도 색도 없는 공후의 소리를 텅 빈 하늘, 영긴 구름, 湘娥의 눈물, 素女의 슬픔 등으로부터 이끌어 낸 것이다. 아울러 그 배치를 공후와 그 소리, 연주자, 시간, 장소 등으로 뒤섞어놓음으로써 독자의 시선을 끄는 예술적 역량을 보여준다. 이어 5, 6구에서는 직접적으로 소리를 썼는데, 그 표현이 아주 특이하다. 즉 5구가 옥이 부서지는 소리, 봉황의 울음소리 등 소리로써 소리를 썼다면 6구는 울음을 머금은 듯한 부용의 모습, 난초가 웃는 모습 즉 형태로서 소리를 쓴 것이라 할 수 있다. 7구부터 끝까지는 모두 그 음악의 효과를 기록한 것이다. 長安 12都城의 냉기는 공후 소리의 뛰어남으로 인하여 녹여지고 하늘과 황제까지 감동시키는 것이다. “紫皇”은 천제와 당시의 황제를 겸칭하는 쌍관어라고 볼 수 있다. 이어 “女媧補天”의 신화를 인용하며 詩境을 천상으로까지 확대시키고 神山과 老魚와 蛟龍 등을 등장시켜 기묘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러한 모든 것은 결국 이빙의 공후 소리에 귀결된다.

이 시는 元和 6년(811년)에서 8년(813년) 사이, 작자 나이 23세 전후 시기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그는 장안에서 奉禮郎이만 말단 관직을 하고 있을 때였다. 李憑은 당나라 궁정에서 각종 藝人을 양성하던 기관인 梨園에 속한 악사로서 공후 연주에 뛰어난 인물이다. 李賀뿐만 아니라 당시 저명한 시인 顧況, 楊巨源 등과 교류가 있었으며, 이빙을 언급한 시로 고향에게는 〈李供奉彈箏篴歌〉, 양거원에게는 〈聽李憑彈箏篴〉 등이 있다. “리”은 원래 악곡의 체제를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후에 引伸되어 일종의 시체 이름이 되었다. 淸人 方扶南은 이 시를 白居易의 〈琵琶行〉·韓愈의 〈听穎師彈琴〉과 함께 거론하며 “소리를 묘사한 최고의 시”로 극찬하였다.<sup>23)</sup>

그밖에 “궁성은 흑독하게 찬 빛에 둘러싸이고, 하얀 하늘에선 옥 같은 꽃 조각조각 떨어진다”<sup>24)</sup> · “요새는 길게 텅 빈 하늘에까지 이어졌고, 저 멀리 붉은 한나라의

23) 方扶南, 《李長吉詩集批注》卷一(王友勝·李德輝 校注, 《李賀集》, 長沙, 岳麓書社, 2003) 3쪽.

24) 034(河南府試十二月樂詞並閏月·十一月): “01宮城團團凜巖光, 02白天碎碎墮瓊芳”

깃발 보인다”<sup>25)</sup> 등의 시구에서 “白”을 하늘, 허공 또는 하늘의 색, 허공의 색으로 묘사하고 있다.

### Ⅲ. 結語

시는 노래다. 《毛詩序》에서는 가슴에 맺힌 것이 있으면 그것을 노래로 한다고 했다. 당시가 최고로 평가받는 이유는 가슴 속에 맺힌 것을 진실로 노래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 가슴 속의 진실은 시인마다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정서 중의 하나는 “懷材不遇”이다. 왕족이라 하나 몰락한 가문, “避諱”라는 악습으로 인하여 진사시에 응시조차 하지 못한 이하가 가슴 속의 회재불우를 피를 토하듯 노래한 것은 어쩌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진실이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이하의 시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한 방법으로 색채라는 이미지, 그 중에서도 시에 나타난 백색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백자가 시간을 나타내는 글자와 함께 쓰인 경우로 白日, 白晝 등이 있다. 백일이나 백주는 한낮을 의미하는 시간이다. 보통 한낮이라면 만물이 활발하게 활동을 할 시간이다. 그런데 이하의 시에서 느껴지는 한낮은 허무한 시간이라는 느낌이 강하다. 해가 내려찍는 무의미하고 지루한 한낮에 백이라는 색채자가 더해져서 허탈하고 공허하고 허무한 대낮인 것이다. 다음으로 백자가 계절을 나타내는 秋와 함께 쓰인 경우인데, 이때의 가을은 수확의 가을이라기보다는 수확이 끝난 뒤의 공허함과 쓸쓸함이 가득한 가을이다. 그러한 가을의 이미지에 백자가 더해짐으로써 더욱 허망하고 쓸쓸한 가을의 이미지가 강해지는 것이다. 그 점은 백자가 다른 계절을 의미하는 春, 夏, 冬 등과는 전혀 함께 쓰이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즉 백은 가을의 또 다른 모습이며 가을을 대표하는 색채자인 것이다. 다음으로 馬와 함께 쓰인 백은 자존감과 순수함이 넘치는 자신에 대한 긍지로서의 백색이다. 馬는 이하 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자안 중의 하나이며 백마는 회재불우의 시인이 노래하는 자부심의 표현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李賀 시에 나타나는 백색의 전체적인 모습은 백색이 가지고 있는 일

25) 180(平城下): “05塞長連白空, 06遙見漢旗紅”

반적인 이미지, 즉 깨끗함, 고결함 등과 본질적으로 부합하지만,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나 가을이라는 계절과 함께 쓰일 경우, 시간의 허무함이나 계절의 쓸쓸함을 나타내는 이미지가 상당히 강하다. 그것은 불과 스물일곱을 살고 간 시인의 시간에 대한 인식과 궤를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 【參考文獻】

- 윤석산, 《현대시학》, 서울, 도서출판 새미, 1996.  
 金坡五, 《詩論》, 서울, 삼지원, 1998.  
 杜牧, 〈李長吉歌詩敘〉; 《李賀詩集》,台北,里仁書局,民國 71.  
 李商隱, 〈李長吉小傳〉; 《李賀詩集》,台北,里仁書局,民國 71.  
 王琦, 《李長吉歌詩彙解》,台北,世界書局,民國 71.  
 葉葱奇, 《李賀詩集》,台北,里仁書局,民國 71.  
 朱子清, 〈李賀年譜〉;台北,清華學報,1933.  
 楊文雄, 《李賀詩研究》,台北,文史哲出版社,民國 69.  
 홍상훈, 《시귀의 노래》, 서울, 명문당, 2007.  
 하용득, 《한국의 전통색과 색채의식》, 서울, 명지출판사, 2001.  
 윌프리드 게린 외 공저, 정재완 역, 《문학의 이해와 비평》, 서울, 청록출판사, 1984.  
 Brooks & Warren, 《Understanding Poetry》, New York, Penguin Books, 1971.  
 R. Wellek & A. Warren, 《Theory of Literature》; 이경수 역, 《문학의 이론》(서울, 문예출판사, 1987).  
 이용재, 〈왕유시에 나타난 색채 표현과 색채 인식〉; 《중국어문학논집》 39집, 중국어문학연구회, 2006.  
 杜國清, 〈李賀研究的國際概況〉; 《現代文學復刊號 第2期》,台北,民國 66年.  
 馬楊萬運, 《李長吉研究》,台北,臺灣大學中文研究所碩士論文,民國 58年.  
 李正治, 《李賀詩裏的時間意識》;台北,《中華文化復興月刊》第10卷 4期. 民國 66.  
 鄭騫, 〈小山詞中的紅與綠〉; 《從詩到曲》,台北,科學出版社,民國 67.  
 張淑香, 《李義山詩析論》,台北,藝文印書館,民國 69.  
 方瑜, 〈李賀歌詩的意象與造境〉; 《中晚唐三家詩析論》,台北,牧童出版社,民國 68.

### 【中文提要】

意象是詩的構造成分之一，詩主要是通過意象具現的。意象是詩人所藉以表達情景的一種有意境的景象，具有描繪性。透過文字的運用，可以把情景再現於讀者的想像之中，并藉以了解或分享作者的情感或美感經驗。

在意象的構成上，色彩字的使用，往往具有直接而強烈的效果，因為色彩字視覺效果最強，最容易予人具體的感受。人們在閱讀詩歌作品時，接受了文字對感官的刺戟，旋即在知覺上造成一幅“心靈的圖畫”，包括一切五官意象的再現。而視覺意象包括色彩·明暗和動靜，其中色彩是視覺意象最重要的一環。色彩所造成的強烈視覺效果使其意象顯得更為鮮活生動·栩栩如生。

詩言語有別他人的一個顯著特點是大量使用色彩字，用色彩提高詩歌的意境和藝術表現力，這早為人所注意。李賀在詩中不僅喜歡而且十分善於使用色彩，特別值得注意的是，在眾多色彩字中“白”字運用的處數之多，令人驚訝。白馬·白日·白水尚屬常見，甚至秋風也可以用“白”來形容。李賀好用“白”這個色彩字，由此可見推析他善用“白”字的原因可能是，“白”在色彩字中屬冷色字，用之輕易能塑造幽靜的氣氛，另外可能還有一個原因是表出他自己的懷才不遇。

### 【主題語】

李賀, 이미지, 白色, 時間, 가을, 말(馬)

투고일: 2014. 10. 15 / 심사일: 2014. 10. 20~11. 5 / 게재확정일: 2014. 11. 10